

신안군 정원수협동조합 출범 6개월만에 ‘결실’

14개 읍면 300여 명 조합원 활동
라일락·조팝나무 등 57만주 재배
햇빛·바람연금 이어 소득원 기대

‘1섬 1테마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
에 나서고 있는 신안군 ‘정원수 사회적
협동조합’이 출범 6개월만에 효과를 거
두고 있다. 신안군이 주민이 재배한 경관
수목 등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급받으면
서 주민소득과 예산절감은 물론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기후변화 대응 등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신안군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 노동부 사회적
기업진흥원 심사를 거쳐 신안군 1호 사회

적협동조합으로 공식 출범했다.

정원수협동조합에는 14개 읍면에서
현재 3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내년 1월까지 400~500명으로 확대될 것
으로 보인다.

이 중 140농가에서 경관묘목 등을 생
산하고 있다. 올해 지도읍 썸머라일락 20
만주, 압해읍 조팝나무 13만주, 비금면
배롱나무 3만주 등 6개 읍면에서 57만주
정원수를 재배하고 있다.

신안군은 조합으로부터 26만분 경관
식물을 공급받아 서남해안 섬숲 복원사
업과 미세먼지 차단숲, 1섬 1정원 조성사
업지에 식재했다.

경관수를 납품한 조합원은 1인당
5000만원의 수익과 3000만원의 순소득
을 올렸다.

신안군도 외지에서 입찰 등을 통해 구
입할 경우 108억원에 달하는 경관식물
비용을 조합으로부터 조달해 예산절감
효과만도 7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 최초 출범한 정원수사회적협동조
합의 효과는 주민 소득증대와 군의 예산
절감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주민소득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을 막고 1년 수십만그루의 나무와 꽃 식
재는 탄소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효
과가 기대되고 있다. 임자 흥매화, 도초
의 수국, 비금의 해당화 등 꽃과 나무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일
자리 창출 등 연쇄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이 공유자원을 활
용한 햇빛연금·바람연금에 이어 주민들

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정원수협동조합 활성화를 위
해 ‘주민참여형 양묘소득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내년 6월까지 230억
원 상당의 수종 30여 종 200만주를 발주
했다.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매년 230억
원, 5년간 1000여 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정원수사회적협동
조합은 농외소득 창출, 예산절감, 지역소
멸과 기후위기 대응 등 1석 4조 이상의 가
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양묘사업은 청·
장년·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내달 중순 ‘개체굴’ 본격 출하
해남군 땅끝바다

해남군이 땅끝정기바다에서 개체굴 양
식에 성공해 출하를 앞두고 있다.

해남군은 화산면 중마어촌계와 함께
신소득 품종인 개체굴 양식을 추진, 6개
월 양식기간을 거쳐 중순께 출하할 예정
이라고 3일 밝혔다.

개체굴은 여러 개체가 덩어리로 자라
는 일반 굴에 비해 껍데기 하나에 한 개체
만 자라도록 채롱(그물망) 속에서 키우
는 양식굴이다. 크기가 크고, 맛이 좋아
일반굴에 비해 두배 정도 가격대가 형성
되고 있으며 해외수출 등으로 소비되는
고소득 품종으로 양식지가 확대되고 있
는 추세이다. 알맹이만 판매하는 알굴과
달리 껍데기째로 판매해 박피작업을 따
로 할 필요가 없다.

해남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체굴
양식에 추진, 중마도 일원에 지난 5월 76
만미를 첫 입식해 채롱수하식으로 양식
에 성공했다.

채롱 수하식 방법은 따로 먹이를 줄 필
요가 없어 바다 부영양화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수는 피해에 따른 폐사율도 낮아
개체굴 양식의 가장 적합한 양식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남군 개체굴은 현재 100g까지 성장
했으며 생존율도 80%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61톤 개체굴을 수확해 국내 판매
및 중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kg당 3500
원, 약 2억1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
로 보인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기’
12월~3월까지 프로그램 운영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겨울 비수기
를 잇는 채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로 활기
가 넘쳐날 전망이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국제자
동차경주장 동계시즌 스포츠주행 프로그
램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주 운영
한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1월 평균 서킷 노
면 온도가 2~4도 유지하고 있어 국내 동
계주행 훈련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다.

매년 평균 50여 일간 연인원 2500여
명이 영암 서킷을 방문해 모터스포츠 저
변 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13주간
에 걸쳐 연인원 2700여명이 동계시즌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주 화·목요일엔 F1코스를 주행하는
선수과 동호인들에게 단체임대가 이뤄진
다. 금요일과 주말엔 서킷 라이선스를 소
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1주권과 1일권
을 판매한다.

상설서킷 1바퀴(랩타임)를 주행하는
시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1회
20분, 하루 최대 100분(5회) 주행이 가
능하다. 1일권은 판매 수량 600매 중 할
인된 금액으로 사전 판매한 100매가 완
판되는 등 동계주행에 대한 높은 관심도
를 보여줬다.

주행권은 국제자동차경주장 누리집
(www.koreacircuit.kr)이나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23~2024 동계 시즌 스포츠 주행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17일까지 매주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개발공사
KIC사업단(061-288-4212)으로 문의
하면 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신안군, 커피 바리스타 25명 양성

신안군이 감성 여행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커피로드 조성을 위한 커피 바리스
타 교육 1기생 25명을 배출했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교육은 모집 요강
을 배부하자마자 신청 인원이 다 채워질
만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지
리적 여건상 섬에서 배와 버스를 옮겨타
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육에 참석
하여 수료했다.

이번 교육 과정은 기존의 커피머신을
사용하는 일반 커피 과정과 달리 교육생
이 직접 생두를 볶고, 볶은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으로 교육생들은 쓰다고만 느
꼈던 커피에서 단맛을 찾고 그동안 맡아
보지 못했던 향들을 찾는 등 커피 문화를
이해하는 신세계를 열어주었다.

수료식에서 열정 가득했던 교육 사진
을 담아 만든 영상을 감상하고, 강사가 수
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풀어
내면서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다.

수료식 이후 바리스타 교육생들은 앞
치마를 두르고 일일 카페를 열어 군청 직
원들에게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으로 직
접 내린 커피를 제공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박우량 신안군수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달 30일 불필
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지속 가능
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는 ‘바이바이(bye
bye)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

3일 신안군에 따르면 챌린지는 일상에
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
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8월부터 시작한
범국민 실천 운동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음 캠페인 참가
자로 정영철 영동군수를 지명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날 챌린지에 참여
하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함께 불필
요한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과 자원 절약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이 커피로드 조성을 위한 커피 바리스타 1기 25명을 배출했다.

신안군 제공

전남도, 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업체 경진 ‘성과’

곡성멜론·해남고구마식품
최우수·장려상…장관상 수상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
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과 장려상 수상 성과를 거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우수사례 경
진대회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에 대해 서면·현장심사를 거쳐 전문심사
위원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 10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남에선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이

최우수상, 해남고구마식품㈜이장려상에
선정돼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사례 선정 업체는 온·오프라인 홍보
와 판촉활동 지원혜택이 주어지고 관
련 사업 추진 시 우대한다.

곡성멜론㈜은 지역 멜론농가와 상생
협력해 재배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공
동선별 시스템 등을 갖춰 연간 950톤의
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고 있다.

설빙과 연계해 멜론 빙수를 출시하는
등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강성일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
남은 농촌융복합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
래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농
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집중 육성해 지
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
에서 수상한 전국 성공모델 113곳 가운데
18곳을 차지하며 전국 최다 1위를 기
록하고 있다.

박간재 기자

전남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5개 군 선정 ‘전국 최다’

곡성·강진·해남·영광·장성군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식품바우처지원 공모사업 선정에서 전
국 24개 시·군 중 5곳이 포함돼 최다 선정
성과를 거뒀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2021년부터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사업 선정 지역은 곡성군, 강진
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이다.

농식품부는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타당성, 사업수행역량 등 사업계
획서를 평가해 도시·도농·농촌 유형별로
고득점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5개 지역에는 35억원을 투입해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 2457가구에 6개월(3~8
월)간 월 8만원(4인 가구 기준) 상당의
농산물 구입권을 지원한다.

농식품바우처는 농식품부가 취약계층
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국내산 신선 농산

물의 지속가능한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 농식품을 구
입하도록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 지급된 바우처는 농협하나로마트, 로
컬푸드직매장, GS25, GS25프레시에서,
온라인에서는 농협몰과 남도장터에서 사
용할 수 있다.

‘남도장터’는 지자체 운영 온라인쇼핑
몰 최초로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로 선정
돼 ‘농식품바우처 전용관’을 개설해 운영
하고 있다.

박간재 기자